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

박삼열

(관동대학교 겸임교수 / 서양근대철학)

I. 들어가는 말

II. 예비적 고찰

1. 스피노자의 세계관
2. 결정론과 자유의지
3. 인식의 세 단계
4. 감정론

III. 사랑 개념의 분류

1. 정념으로서의 사랑
2. 자기 결정적인 사랑
3.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IV. 스피노자와 기독교의 사랑 개념

V. 맺는 말

• ABSTRACT •

In this essay I argue that there is a more subtle and complex view of love implicit in the *Ethics*. A third type of love, which may be characterized as "self-determined," serves to mediate between the extremes of what Spinoza calls the "common sort of love" and the intellectual love of God. Before this more subtle view of love as potentially self-determined can be developed we will need to examine Spinoza's views on the nature of the emotions. Specifically, it will be crucial to show that the distinction between active and passive emotions, and hence between active and passive types of love, is indeed tenable. For this distinction to be possible, it will need to be shown that Spinoza's conceptual framework can allow for the possibility of at least limited human freedom. Based on Spinoza's view of the emotions, we will be able to sketch a taxonomy of love in the *Ethics*, contrasting self-determined love with both the common sort of love and the intellectual love of God.

Key Words: Spinoza, emotion, love, active, passive, God, conatus

I. 들어가는 말¹⁾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은 세 가지로 분류된다. 그것은 (1) 정념으로서의 사랑 (2) 자기 결정적인 사랑 (3)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다. 그의 사랑 개념의 전개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가 먼저 고찰해야 할 이론들이 있다. 왜냐하면 사랑 개념은 감정론에 기초하고 있으며, 그의 감정론은 인식론과 병행하면서 전개되고, 또한 인식론은 그의 형이상학적 세계관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2장에서 그의 『윤리학』에 전개된 순서에 따라 형이상학, 인식론, 감정론을 가능한 한 간략하게 예비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그리고 3장에서 위의 세 가지 종류의 사랑에 대해 본격적이고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할 것이다. 그런 다음, 4장에서는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을 기독교의 사랑 개념과 비교하고, 사랑에 대한 스피노자의 관점이 기독교의 관점과 어떤 점에서 접목될 수 있는지를 살펴 볼 것이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의 본질은 ‘자신을 보존하려는 욕망’이기 때문에 인간은 더 완전해 지려고 한다. 그 결과 인간은 더 완전한 상태로의 이행인 기쁨을 바라고, 덜 완전한 상태로의 이행인 슬픔은 피하려고 한다. 그리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은 사랑하고, 슬픔을 주는 대상은 미워한다. 이렇게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라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은 나를 더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슬픔을 주는 대상은 나를 덜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미워하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이러한 감정은 영혼의 정념(passion)이므로 인간이 벗어나야 할 부정적인 것이며, 의지를 통해 정신이 이것을 지배하여야 하는 것인가?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두 경우를 모두 거부하고 제3의 길을 제시한다. 그는 우선 감정을 수동감정과 능동감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부적합인 인식과 적합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정념, 즉 수동적인 감정은 부적합한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다. 능동감정은 정념의 연속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연속이라고 한다. 인간이 이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대상에 대한 적합하게 인식하는 데 있다. 인간 정신은 능동적으로 인식해서 타당한 관념을 가질 때, 모든 수동감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욕망이라는 능동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정념으로서의 사랑도 같은 방법에 의해 능동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인식론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이용함으로써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것이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길이다. 이 길에서 우리는 인식의 최고 단계인 신에 대한 인식에까지 다다를 수 있다. 신에 대한 인식은 우리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고, 이 기쁨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 지적인 사랑으로 마음의 평화를 누리게 되고, 최고의 정신적 만족을 얻게 된다. 이것이 인간의 최고 행복인 것이다. 그럼 예비적 고찰을 거친 후에, 스피노자의 세 가지 사랑 개념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자.

1) 이 글에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을 다음과 같은 약자들로 인용한다.

A = axiom ; P = proposition ; D = definition ; Dem = the demonstration of the proposition ; C = corollary ; S = scholium ; Post = postulate ; L = lemma ; Exp = explanation ; Pref = Preface ; App = Appendix.

예를 들어 ‘『윤리학』 ID1’은 ‘1부 정의 1’, ‘『윤리학』 IIP13S’는 ‘2부 정리 13의 주해’, ‘『윤리학』 IIP31Dem’는 ‘2부 정리 31에 대한 증명’을 의미한다.

II. 예비적 고찰

1. 스피노자의 세계관

스피노자의 세계관은 이성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합리적 세계관이다. 이러한 세계관의 특징은 코페르니쿠스, 갈릴레이, 케플러, 보일, 데카르트 등이 저술한 과학 저작들에서 찾을 수 있다. 이 저작들에서 그들은 이성의 역할을 명시하고, 자연의 모든 현상들이 법칙을 발견했고, 이를 명백하게 만들려고 시도했다. 이러한 합리적 사고는 스피노자에게서 더욱 더 철저해진다. 모든 것은 법칙과 질서에 따라 존재하고 발생할 뿐, 단지 우연이나 변화에 따르지 않는다. 스피노자는 존재하는 모든 것들을 유기적 우주 안에서 하나로 연결하고자 노력하였다. 그에게 우주 전체는 합리적으로 질서 지워지고, 인과적으로 상호 연결된 하나의 존재이다. 그리고 그것 이외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스피노자는 우주를 통일된 하나의 단일체, 즉 하나의 실체로 인정하고 있다. 이는 그의 철학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개념이다. 어떤 대상, 사건, 경험이 고려되든지 그것들은 다른 사물, 사건, 경험들에 의존해 있고, 그것들은 또 다른 무수한 사물, 사건, 경험에 의존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계속되는 의존관계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독립적인 존재에 이를 때까지 무한히 계속될 것이다. 따라서 인과적 연쇄가 무한히 계속되지 않기 위해서 독립적인 존재, 다시 말해 자기 의존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동의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새로운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즉 “자기 의존적인 존재는 무엇인가?”, 또한 “이 존재는 자기에게 의존하고 있는 대상, 사건, 경험들의 세계와 어떤 관계에 있는가?”라는 문제가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자기 의존적인 존재인 절대자가 무로부터 세계를 창조하고, 그 세계가 스스로 유지되도록 법칙을 부여하고, 세계로부터는 이탈해 있다고 대답할 수 있다. 또한 절대자는 자신이 창조한 세계에 때때로 기적적인 방법으로 개입하는 전능하고, 초월적인 창조자이다. 이러한 이신론(理神論)적 생각은 스피노자 당시에 거의 일반적이었다. 데카르트 역시 이신론자로서 초월적 절대자의 무로부터의 창조를 인정하였다.

그러나 외부적 창조자와 무로부터의 창조에 대한 주장들은 스피노자를 만족시키지 못했다. 이것은 그의 철저한 합리적 세계관과 상충된다. 그에게 세계는 합리적으로 질서 잡혀져 있고,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 가능한 세계이다. 따라서 이 세계를 초월해 있는 다른 존재나 세계를 인정하는 것이나 그 초월적 존재가 이 세계를 창조했다고 생각하는 것 등은 모두 인간의 상상력에 불과하다. 또한 무로부터의 창조와 같은 최대의 기적을 인정하는 것은 이 세계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될 뿐만 아니라, 세계에 관한 설명을 더 어렵게 만든다. 무로부터의 창조를 합리적이라고 설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합리적 세계관에서 ‘초월적 창조자’와 ‘무로부터의 창조’ 개념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은 당연하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이 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궁극적으로 의존할 수 있는 절대적 존재, 즉 자기 의존적인 존재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우주를 초월한 곳에서 절대적 존재를 찾는 신비적 방법은 문제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각각의 사물, 사건, 경험 등의 절대적인 토대를 우주 안에서 찾으려고 시도했고, 그 토대는 다름 아닌 각각의 사물, 사건, 경험 등의 모든 체계적인 통일이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이 세계 내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전체'를 자기 의존적 존재로 간주한다. 이 '체계적으로 통합된 전체'로서의 존재는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할 필요가 없는 자기 의존적인 존재이고, 세계의 모든 사물, 사건, 경험들은 이 존재에 의존하고 있다.²⁾ 그리고 이 상호 연결된 시스템으로 이해되는 존재는 자연이라고 불린다. 스피노자는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하고, 초자연적인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자연 이외의 어떤 실재성도 인정하지 않았다. 자연은 자존적이고, 스스로 유지되고, 완전히 실재하는 모든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단일한 자연이다. 이렇게 자연을 단순화하는 세계관과 자연 이외의 어떤 실재도 인정하지 않는 세계관은 인간이성에 의한 과학적 탐구만으로 세계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길을 열어놓고 있다.

스피노자는 우주를 초월한 어떤 존재도 인정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 존재하는 것이라고 불리는 것은 무엇이든지 우주 체계에 포함시키려고 시도하였다. 그래서 그는 물질을 부정하는 관념론, 정신을 부정하는 유물론, 또한 신의 실재성을 부인하는 무신론 등의 허울만 좋은 단순성을 거부하였다. 스피노자에게 정신, 물질, 또한 신마저도 우주 체계에서 자신들의 자리를 가진다. 스피노자에게 신의 자리는 바로 자연의 전 체계이다. 왜냐하면 신은 완전한 자존적인 존재로서 이해되는데, 그의 합리적 세계관에서는 우주체계, 즉 자연이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하나이면서 모든 것'이 신이고, 신은 '모든 것인 하나'가 된다.³⁾ 실체 즉 우주의 전 체계가 그 법칙에 따라 무한하게 변화하듯이, 실체 즉 신은 자기 본성의 필연성에 따라 무한하게 변화해야만 한다. 이 변화한 상태가 양태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이다. 스피노자의 이러한 세계관은 신의 본성을 인식하는 데 자연현상에 대한 과학적 탐구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우주의 신비에 대한 과학적 탐구와 설명들은 오히려 종교적 설명에 도움을 주는 것이 된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신관은 과학과 종교사이에 다리를 놓고 있다.

2. 결정론과 자유의지

스피노자의 세계관은 데카르트의 세계관과의 비교를 통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실체개념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새로운 세계관을 제시한다. 데카르트는 실체를 무한 실체와 유한 실체로 구분한다. 무한 실체는 신이고, 유한 실체는 비록 신에게는 의존하고 있더라도, 세계 안에 있는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독립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이 유한 실체는 사유하는 실체인 '정신'과 연장된 실체인 '물체'로 구분된다. 그러나 데카르트는 자연에서 정신을 떼어내어 사유하는 실체를 만듦으로써 다음과 같은 난관에 봉착하게 된다. 그는 자연에서 분리한 정신을 (자연의 일부인) 인간에게 귀속시켰다. 그래서 인간은 사유하는 실체(정신)인 동시에 연장된 실체(신체)가 되었다. 하나의 개별체인 인간이 동시에 두 개의 실체가 된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주장이 아니다. 그래서 데카르트는 송과선이라는 가설을 내세워 두 실체, 즉 정신과 신체의 관계를 설명했다. 그는 뇌의 뒷부분에 있는 송과선을 통해 정신이 자신의 의지를 신체에 전달하고, 또한 신체가 자신의 활동을 정신에 전달한다는 가설을 만들었다. 그러나 이러한 가설은 사람들을 전혀 만족시킬 수 없었고, 하나의 문제점으로 남게 되었다.

2) 이러한 관점은 무로부터의 창조의 문제를 피할 수 있게 한다. 이 세계 즉 자연은 무로부터 창조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스스로 생성하고 소멸하는 것이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는 세계 스스로의 변화 생성이 곧 창조가 된다.

3) A. Wolf, "Spinoza",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 no. 5 (1927), 15쪽.

스피노자의 과제는 데카르트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었는데, 그의 해결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 정신을 다시 자연으로 귀속시켜 데카르트의 물질적 자연을 정신과 물질을 포함하는 자연으로 만드는 것이었다. 데카르트가 정신을 자연에서 떼어내어 인간에게만 포함시킨 이유는 인간 정신이 지닌 자유의지가 기계론적 자연관과 모순되기 때문이었다. 5장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지만 스피노자는 자유의지를 인간정신의 상상이나 착각으로 간주하면서 부정하였기 때문에 기계적인 자연에 정신을 포함시키는 데 전혀 문제가 없었다. 그 결과 정신과 물체로 분리되지 않은 하나의 실체를 주장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의 자연관과 범신론에 의해 그 하나의 실체는 다름 아닌 신이 된다. 즉 그에게 실체는 신과 동일시되며, 이 실체 즉 신은 유일성을 지니고 있다. 데카르트에게는 신이라는 무한실체와 정신과 물체라는 유한실체가 있다. 반면에 스피노자에서는 여러 실체들이 하나의 실체로 단순화된 것이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실체개념은 신의 문제와 정신의 문제 등을 기계론적 세계관에 잘 융해시키고 있다.

스피노자에게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적 본성의 필연성, 즉 우주의 법칙에서 생긴다. 그러므로 자연에는 우연적인 것이 하나도 없고, 존재하는 모든 것은 일정한 방식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신의 본성의 필연성에 의해 결정되어 있다. 신(실체, 자연)은 모든 사물의 존재의 원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사물의 본질에 대한 작용원인이다. 다시 말하면 개물은 결과로서만 있는 것이 아니고, 결과로 있으면서 어떤 작용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것도 실체의 필연적인 원인에 의한 것이라고 스피노자는 말하고 있다. 신으로부터 결정 받지 않은 사물은 자신을 작용하도록 결정할 수 없다. 세계의 모든 존재와 작용, 다시 말해 만물의 질서는 실체에서 연유한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은 실체의 본성이 지닌 필연성에 의해서 존재하도록 결정될 뿐만 아니라, 일정한 방법에 의해 존재와 작용으로 결정되므로 우연적인 것은 하나도 존재할 수 없다. 스피노자는 마치 삼각형의 본성에서 그 내각의 합이 두 직각이 되는 것이 필연적인 것과 같이 양태는 실체의 필연적인 결과라고 본다. 우리는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적 체계가 실체-양태 관계의 인과적 필연성이라는 논증에 의해서 모든 것이 설명될 수 있음을 볼 수 있다. 이러한 그의 형이상학적 체계는 엄격한 결정론으로 해석되고 있다. 실체와 속성과 양태의 관계는 필연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것들이 이루는 자연 전체는 필연적인 인과의 법칙에 따라서 움직여 나가는 기계론적 체계로써 아주 잘 짜여진 계획처럼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결정론에 의해 스피노자는 인간의 자유의지를 부정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간이 자연의 일부임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공통법칙을 따르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자연 밖에 존재하는 사물처럼 자신의 능력대로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다고 본다. 그들은 자연 안의 인간을 자연의 질서에 순응하지 않는 존재, 즉 자신의 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행동할 수 있는 존재로 보는 것이다. 이는 마치 왕국 안에 또 다른 왕국을 만든 것처럼 부조리하다. 자연의 법칙과 규칙은 항상 동일하고 자연 안에 존재하는 모든 사물은 이 자연의 보편적인 법칙에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윤리학』 III Pref). 인간이 스스로 자유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간의 상상력이나 착각일 뿐이다. 이러한 착각은 인간이 자기 의식을 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내가 던져서 날아가고 있는 돌이 자신이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의식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리고 날아가고 있다는 사실의 원인인 내가 던져졌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그 돌은 자신의 의지로 자유롭게 날아간다고 생각할 것이다. 우리는 이 돌을 조롱할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이 돌과 같은 처지에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원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 더 나아가 자연의 필연적 인과관계에 대한 인식은 자유의지에 대한 착각에서 벗어날 수 있

게 해준다. 이 자유의지의 부인은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토대가 되고 있다. 또한 나중에 보겠지만 특히 그의 감정론과 사랑 개념에서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3. 인식의 세 단계

스피노자는 인식을 세 종류로 나눈다. 첫 번째 인식은 상상에 의한 인식이고, 두 번째 인식은 이성에 의한 인식이고, 세 번째 인식은 직관에 의한 인식이다.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일반적으로 인식론과 평행을 유지한다. 이러한 사실은 정념, 즉 수동적 감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이 인식론과의 관계를 떠나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스피노자의 윤리학에 대한 예비적 고찰로써 인식에 관한 그의 입장을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윤리학』 P40S2).

(1) 상상력에 의한 인식: 상상에 의한 인식에는 소문에 의한 인식과 막연한 경험에 의한 인식이 있다. 소문에 의한 인식은 나의 생일이나 이리이러한 부모에게서 태어났다는 것이나 그 밖의 비슷한 것에 대해 들어서 알고 있는 지식이다. 그리고 막연한 경험에 의한 지식이란 우리들이 경험한 세계와 모순되는 다른 세계를 지각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이를 받아들이는 지식이다. 예를 들어 우리는 막연한 경험에 의해 미래에 죽을 것을 안다. 이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아는 것이다. 또한 막연한 경험과 관찰에 의해 우리는 기름은 불꽃을 내기에 알맞은 것이고, 물은 불꽃을 끄기에 알맞은 것임을 안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거의 모든 것을 상상에 의한 인식으로 알게 된다. 그러나 막연한 경험과 관찰에서는 대상들을 분리해서 인식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연결되는 관계나 법칙을 밝혀낼 수가 없다.

(2) 이성에 의한 인식: 스피노자에게 첫 번째 인식은 항상 오류의 가능성을 안고 있다. 반면에 두 번째와 세 번째 종류의 인식은 필연적으로 참이다. 두 번째 인식인 ‘이성에 의한 인식’의 예를 스피노자는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현상들의 어떤 공통 개념을 기초로 해서 이성의 도움을 받아 우리는 시력의 본성을 알게 된다. 그래서 시력에는 동일물이라도 멀리 떨어져서 보면 가까이 볼 때 보다 작게 보이는 특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것에 근거해서 태양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크다거나 이와 비슷한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두 번째 인식은 현상들이나 사물들에 공통적으로 있는 개념들을 기초로 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성의 도움에 의해 이 공통개념들을 토대로 사물들의 법칙들과 연결된 관계들을 발견하게 된다. 이처럼 이성에 의한 인식은 다른 아닌 과학적 인식의 단계이다. 이 인식은 무수한 법칙과 무수한 연결고리의 관계들을 끝까지 추구하고 밝혀낸다는 점에서 첫 번째 단계의 인식보다 훨씬 월등하다. 그러나 이 인식은 전체로서의 우주체계에 관한 전반적인 관점을 주지 못한다는 점에서 매우 추상적이다. 그리고 이 과정은 세 번째 종류의 인식만이 수행할 수 있다.

(3) 직관에 의한 인식: 스피노자는 세 번째 인식인 직관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선분 A가 선분 C와 평행이고, 선분 B가 선분 C와 평행이면 선분 A와 선분 B가 평행하다는 것을 우리는 직관에 의해 안다. 그리고 2에 대한 3의 관계처럼 4에 관계되는 수를 구할 때, 우리는 직관으로 6이라는 것을 안다. 이렇게 직관은 어떠한 추론과정을 거치고 않고 한 번에 아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스피노자는 이 직관에 의한 인식을 전체로서의 우주체계에 대한 인식에 적용시킨다. 즉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직관으로 인식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직관지에 대해 스피노자가 언급한 내용이 너무 적기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스피노자는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하는 직관을 어떤 영감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신비적인 직관으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을 뿐 아니라, 이 직관에 의한 인식을 이성에 의한 과학적 인식과 심지어 상상에 의한 인식과도 연관시키고 있다. 인식의 세 단계를 비유적으로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과정으로 설명해보자. 우리는 처음에 알파벳을 배우고, 그럼 다음 문법에 따라 한 단어에서 글자들이 어떻게 조합을 이루는지 배운다. 또한 한 문장에서 단어들이 어떻게 조합되는지 배운다. 그런 다음, 마침내 문장과 문단의 의미를 한 눈에 알게 된다. 이와 유사하게 우리는 자연이라는 커다란 책을 배운다. 처음에 우리는 독립적인 사실과 사건들을 관찰하게 되고, 그런 다음 그것들의 연결고리와 법칙들을 이해하게 된다. 그리고 마침내 자연전체에 대한 직관을 얻게 된다. 이렇게 직관에 의한 인식은 이성적 인식의 단계를 거쳐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것 안에 있는 신, 그리고 신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인식하는 통찰력이다.⁴⁾ 이처럼 스피노자는 인간 이성에 근거한 인식을 통해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4. 감정론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그의 감정론의 기본적인 형태를 또한 살펴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사랑은 하나의 감정에 속하고 따라서 그의 사랑 개념은 감정론에 토대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감정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감정(affectus)이란 우리의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대하거나 감소하며, 촉진하거나 저해하는 신체의 변용(affectio)인 동시에 그러한 변용의 관념이라고 이해한다.(『윤리학』 IIIID3)

감정(affectus)에는 ‘움직여진다’는 뜻이 있다. 변용(affectio)은 신체가 현재 자극 받고 있는 상태이다. 반면에 감정은 현재 자극 받은 신체의 상태가 이전의 자극상태와 비교해서 어떻게 움직여졌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진다. 즉 감정은 지금의 신체의 상태가 이전 상태보다 증대되고 감소되는 이행을 뜻한다. 갈증이 나서 물을 마신 경우에 대비해보면, 변용은 물을 마신 신체의 자극상태이다. 그리고 감정은 지금 물을 마신 상태가 이전의 상태(갈증이 났던 상태)와 비교해서 신체의 활동이 증대된 이행이다. 그리고 이 감정은 다름 아닌 기쁨에 속하는 감정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 3부에서 많은 감정들을 분석한다. 그것은 ‘코나투스(conatus)’ 개념에서 시작된다. ‘코나투스’는 스피노자가 주장하는 감정론의 근본원리일 뿐만 아니라, 그의 윤리학의 토대가 되고 있는 개념이다. 모든 사물은 가능한 한, 그리고 자신의 힘이 미치는 한 자신의 존재를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또한 모든 사물은 자신을 소멸시킬만한 반대의 성질을 자기 안에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사물도 외부 원인에 의하지 않고는 그 자체로 소멸될 수 없다. 이렇게 각 사물이 자신을 보존하려는 노력이 코나투스이고, 그것은 각 사물의 본질이 된다(『윤리학』 IIII4-7). 코나투스가 인간 정신에 관련될 때는 ‘의지’라고 한다. 그리고 코나투스가 정신과 신체에 모두 관계될 때는 충동이라고 한다. 또한 충동이 의식을 동반하는 경우 욕망이라고 한다. 욕망은 코나투스의 인간학적 표현일 뿐이다. ‘충동’에 의해서 배가 고프면 밥을 먹는 경우, 자기보존을 위해 밥을 먹으려는 노력, 즉 충동한다는 사실을 의식하지 못한다. 반면에 ‘욕망’에 의해서 밥을 먹는 경우는 밥을 먹으려

4) 같은 논문, 18쪽.

는 노력, 즉 충동을 의식하고 있다는 점이 다르다. 다시 말해 욕망은 의식을 동반한 충동이고, 이 의식 때문에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밥을 먹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인간의 기본 감정으로 세 가지(욕망과 더불어 기쁨과 슬픔)를 내세운다. 어떤 사물이 신체의 활동 능력에 영향을 미칠 때, 그 사물에 대한 관념은 우리 정신의 활동 능력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정신은 신체의 변화에 따라 때로는 더 완전한 상태로, 때로는 덜 완전한 상태로 옮겨가면서 많은 변화를 겪는다(『윤리학』 III P11 / P11S). 기쁨과 슬픔의 감정들은 정신의 이러한 변화 상태와 관계된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기본 감정인 기쁨과 슬픔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기쁨은 정신이 더 큰 완전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수동이고, 반면에 슬픔은 더 작은 완전성의 상태로 이행하는 수동이다”(『윤리학』 III P11S). 욕망, 즉 자기보존의 노력 때문에 정신은 신체의 활동능력을 증대시키거나 촉진시키는 것을 가능한 한 인식하려고 하고, 신체의 활동능력을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것을 가능한 한 인식하지 않으려고 한다. 그리고 감소하거나 저해하는 것을 인식하게 될 때는 그러한 것을 배제할 수 있는 사물을 가능한 한 상기고자 한다(『윤리학』 III P12, 13). 자기를 보존하려는 코나투스에 의해서 우리를 더 큰 완전성으로 이행시키는 기쁨을 받아들이고, 덜 완전하게 이행하는 슬픔은 배제하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 즉 우리를 더 완전하게 하는 대상은 사랑하고, 우리에게 슬픔을 주는 대상 즉 우리를 덜 완전하게 하는 대상은 미워한다. 그래서 스피노자는 ‘사랑’을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으로 정의하고, ‘미움’을 ‘외부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슬픔’으로 정의한다. 이처럼 인간 정신은 코나투스에 의해서 신체 및 자기자신을 긍정한다. 또한 신체의 보다 큰 완전, 즉 자기 자신의 보다 큰 완전을 긍정하기 때문에 이를 돕는 것을 사랑하고, 이를 방해하는 것을 미워한다. 감정에 관한 스피노자의 입장을 다시 정리해 보자. 인간의 본질은 욕망이고, 욕망하는 자는 자신을 보존하려고 노력하는 자이다. 따라서 자기 자신의 심신을 보다 큰 완전성으로 옮기려고 한다. 그 결과 인간은 기쁨(더 완전한 상태로의 이행)을 바라고, 슬픔(덜 완전한 상태로의 이행)은 피한다(『윤리학』 III P28). 그리고 기쁨을 주는 것은 사랑하고, 슬픔을 주는 것은 미워한다. 이 기쁨과 슬픔의 관계에서 사랑과 미움이 나오고 또한 사랑과 미움이 여러 가지로 갈라져서 일체의 감정이 생긴다. 이것이 스피노자가 말하는 감정의 발생과 감정에 대한 정의이다. 감정론은 그의 윤리학을 살펴보면 구체적으로 논의된다.

III. 사랑 개념의 분류

1. 정념으로서의 사랑

정념으로서의 사랑의 대표적인 경우는 감정의 노예가 된 대부분의 사람이 경험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사랑을 “외부원인에 대한 관념에 의해 동반된 기쁨”이라고 정의한다. 그에게 사랑은 어떤 대상이 나에게 주는 기쁨이다. 이것은 어떤 대상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면 우리는 그 대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⁵⁾

정념으로서의 사랑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이 과도하다는 것이다.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라는 지위 때문에 자주 절제하지 못하게 된다. 이런 사랑의 힘은 신체의 다른 활동을 능가할 수 있을 만큼 크기 때문에 끈질기게 인간에게 달라붙는다. 예를 들어 대중가요나 인터넷

5) 예를 들어, “나는 너를 사랑한다”는 말은 “너는 나에게 기쁨을 준다” 또는 “너로 인해서 나는 더 완전하게 된다.”라는 말과 다름이 없다.

게임 등에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신체의 다른 활동을 능가한다고 해보자. 그렇게 되면 대증요나 인터넷 게임에 대한 사랑은 무절제해지고 과도하게 된다.⁶⁾ 스피노자는 정념으로서의 사랑이 지니는 물리적 측면도 강조한다. 그것들의 보기들은 폭음, 포식, 성욕 등과 같은 신체와 관계된 강박관념들이다. 정념으로서의 사랑이 지니는 다른 특징에는 부적합한 관념들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강제력을 지니고 있다. 이것의 흔한 보기로 모든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천방지축의 자식을 무조건 옹호하는 부모의 고집스러운 사랑이 있다. 자기 자식에 대한 정념으로서의 사랑은 자식이 지닌 성격상의 결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간과한 채 그렇지 않다고(자기 자식이 그럴 리 없다고) 생각하도록 강제한다.⁷⁾ 이러한 종류의 사랑은 자기 결정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이것은 부적합한 관념들과 상상력에 기반을 두는 기쁨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스피노자가 정념으로서의 사랑을 부정적으로 본 것만은 아니다. 우선 스피노자는 사물들에 대한 물리적이고 감각적인 사랑을 (비록 조금이지만) 인간 행복의 한 역할로 인정한다: “사물들을 이용하여 그것들을 가능한 한 즐기는 것은 현자에게 적합하다. 알맞게 요리된 맛있는 음식과 기분 좋은 향료, 달콤한 향기, 푸른 식물의 아름다움, 장식, 음악, 운동경기, 연극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해치지 않고 각자가 이용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종류의 것으로 자신을 상쾌하게 하며 원기를 북돋우는 것은 현자에게 어울린다(『윤리학』 IVP45S).”; “실제로 즐거워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음울하고 슬픈 미신뿐이다(『윤리학』 IVP45S).” 이처럼 정념으로서의 사랑이 언제나 부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이 정념으로서의 사랑이 구체적으로 전개되는 과정을 살펴보자.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다. 이것은 호의가 된다.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하고 과대평가 하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미워하는 것을 기쁘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한다. 그리고 그 사람을 부정하고 멸시하게 된다. 자기가 사랑하는 것을 슬프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미워한다. 이것은 분노가 된다. 자기가 미워하는 것을 슬프게 하는 사람을 우리는 사랑한다.

스피노자가 말하는 사랑 개념에서 지적할 수 있는 문제점으로는 “외적 원인의 관념을 동반하는 기쁨”이라는 정의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랑 개념에 포함된 집착, 애정, 관심 따위의 모든 영역을 설명해 줄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문제점은 사랑의 적용범위가 너무 넓다는 것이다. 그의 사랑 개념은 많은 호의적인 감정들을 포함하는 총칭적인 용어로 이해될 수 있다. 따라서 사랑의 다른 정도와 다양함을 구별하는 것은 어렵게 된다. 예를 들어, 친한 친구와 시간을 보냄으로써 발생하는 기쁨과 초콜릿을 먹는 행위에서 발생하는 기쁨 모두에 사랑이라는 이름이 주어지게 된다. 이렇게 사랑의 정의가 너무 넓기 때문에 덧없는 신체적 기쁨인 쾌감과 오랜 기간의 정서적인 집착뿐만 아니라 학문적 관심까지 모두 포함하는 결과가 나온다. 스피노자는 일반적인 사랑과 특별한 형태의 사랑의 구분 그리고 다른 대상에 대한 사랑의 본성 등에 대해 거의 지적하지 않고 있다. 그는 『윤리학』에서 이러한 비판을 예상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는 이런 다양한 형태의 사랑에 대한 연구가 심리학의 과제이지, 철학적인 관심이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예를 들어, 부인에 대한 사랑과 자식에 대한 사랑 사이에 큰 차이점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철학에서는 이

6) 이런 경우, 부모가 인터넷 선을 절단해서 게임을 하지 못하게 하면 식음을 전폐할 정도로 슬퍼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그 이유는 인터넷 게임을 하면서 얻는 ‘기쁨’, 즉 자신의 ‘더 큰 완전성’이 더 작은 완전성으로 이행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7) 남녀사이에서 사랑하는 사람의 결점이 결점으로 보이지 않는 경우도 마찬가지로의 경우이다.

러한 차이점을 조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그의 입장이다. 다시 말해, 스피노자는 『윤리학』에서 제기하는 목적을 위해서는 감정을 통제할 수 있도록 감정과 정신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보았던 것이다.

정념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은 인간 심리의 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진단에 기반을 두고 있다. 모든 종류의 사랑에는 공통점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측면이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애완 동물이든 아이스크림이든, 또는 사람이든 음악이든, 단지 기쁨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그러한 것들을 사랑한다. 이렇게 기쁨을 준다는 이유만으로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사랑이 지니는 이기적인 측면이다. 여기서 말하는 기쁨이란, 스피노자에 의하면 나를 이전 상태보다 좀 더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다.

또한 그는 사랑 개념에서 기쁨의 근원인 외부대상을 강조함으로써 사랑이란 감정의 난해함을 설명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 우리의 수동적 감정, 즉 정념의 본성은 필연적으로 우리가 영향을 받은 대상의 본성을 포함한다(『윤리학』 IIIIP56). 그래서 초콜릿을 먹는 기쁨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랑은 초콜릿의 본성을 포함하고, 음악을 듣는 기쁨으로부터 발생하는 사랑은 그 음악의 본성을 포함한다. 스피노자는 이 점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서 증명한다: 우리는 부적합한 인식을 가지는 정도만큼 수동적이다(『윤리학』 IIIIP3). 어떤 대상(부적합하게) 인식할 때, 우리는 우리 신체의 본성과 외부물체의 본성에 영향을 받는다(『윤리학』 IIP17S). 그러므로 모든 수동적 감정은 그것이 관계하는 외부 대상의 본성을 포함해야 한다. 따라서 다양한 외부 대상들이 있는 만큼 많은 다른 종류의 사랑이 있게 된다. 하지만 사랑에 대한 스피노자의 설명이 이러한 정념으로서의 사랑에 대한 분석에만 놓여 있다면 불충분하다. 그것은 사랑에 의해 유발되는 이타적인 행위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럼 다음 절에서는 이타적인 행위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2. 자기 결정적인 사랑

우리는 위에서 부적합한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수동적인 사랑, 즉 사랑의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정념으로서의 사랑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 형태의 사랑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많은 부정적인 감정과 인간 상호간의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고, 불화가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된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 자기를 보존하려는 욕망이 인간의 본질이다. 그렇다면 나에게 기쁨을 주는 대상은 나를 더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슬픔을 주는 대상은 나를 덜 완전하게 하기 때문에 미워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당화되는 것인가? 아니면 데카르트처럼 이러한 감정들은 영혼의 정념(passion)으로 인간이 벗어나야 할 부정적인 것이고, 정신이 의지에 의해 이것들을 지배하여야 하는가? 스피노자는 제3의 길을 제시한다. 전자의 경우에는 그것이 부적합한 인식에서 생긴 감정이기 때문에 그 대상들이 정말로 나를 더 완전하게 하거나 덜 완전하게 하는 것이 아니다. 잘못된 인식에 근거한 착각의 상태일 뿐이다. 후자의 경우에는 스피노자는 정신의 자유의지를 부정했기 때문에 의지가 감정을 지배하도록 하는 데카르트의 방법에 대해 반박한다. 이 방법은 정신과 신체 사이의 우월성과 인과관계를 부정하는 그의 심신 평행론과도 모순된다.

스피노자는 우선 감정을 수동감정과 능동감정으로 구분하고, 이를 부적합인 인식과 적합한 인식과의 관계에서 설명한다. 인식론의 도움을 받아 감정을 이용해서 감정의 지배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것이 스피노자가 제시하는 길이다. 데카르트에게는 모든 감정이 정념

(passion)이다. 정념은 그 어원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적인 감정이다. 수동적이라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원인에 의해 그렇게 되도록 강제된다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정념은 우리가 스스로 결정해서 가지는 감정이 아닌 수동적인 감정이다. 그런데 스피노자에게도 욕망, 기쁨, 슬픔의 모든 감정은 정념, 즉 수동적이다. 기쁨과 슬픔의 경우 앞에서의 정의에서 볼 수 있듯이 수동적이라는 점을 확실하게 밝히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감정들이 능동적인가? 스피노자에게 욕망, 기쁨, 슬픔 이 세 가지에 속하지 않은 어떠한 다른 감정도 있을 수 없다. 이러한 사실은 능동 감정의 가능성을 수동 감정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암시한다. 수동 감정은 정신의 부적합한 인식에 기인한다. 여기에서 정신이 능동적으로 활동한다면, 즉 적합하게 인식한다면 우리는 수동감정에서 벗어나 능동감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스피노자는 능동감을 다음과 같이 인정한다. “수동인 기쁨과 욕망 이외에 스스로 활동할 때[능동적일 때]의 우리들에게 관계하는 다른 기쁨과 욕망의 감정이 있다”(『윤리학』 IIIp58). “스스로 자유로이 활동하는 정신에 관계한 모든 감정은 모두 기쁨이나 욕망에 관계하는 감정뿐이다”(『윤리학』 IIIp59). 능동감정에서 슬픔이 배제되는 것은 당연하다. 슬픔은 덜 완전한 상태로의 이행이기 때문에 능동적인 상태에서 이러한 감정을 가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능동적인 상태에서 자신을 보존하려는 코나투스 본질에 따라 행동하기 때문에 자신을 덜 완전한 상태로 이행하는 슬픔의 감정은 능동감이 될 수 없는 것이다.

능동감정은 수동적인 정념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인간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감정이다. 그는 감정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무력함을 예속이라고 했다. 또한 감정의 지배를 받는 인간은 자신의 이성의 힘, 즉 권능에 의하지 않고 감정의 힘에 좌우되는 나약한 존재로 간주했다. 인간이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는 길은 외부대상에 대해 적합한 인식을 함으로써 능동 감정을 가지는 것이다. 인간 정신은 능동적으로 인식해서 타당한 관념들을 가질 때 모든 수동감정에서 벗어나서 기쁨과 욕망이라는 능동 감정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우리는 정념으로서의 사랑 역시 같은 방법에 의해 능동적인 사랑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신이 적합한 인식을 가질 때, 정신은 정신자체와 정신의 활동능력을 인식하고, 그것에 의해서 기쁨을 느낀다(『윤리학』 IIIp53). 즉 정신은 능동적일 때 기쁨을 느낀다. 그러므로 적합한 관념들에 의한 기쁨이나 욕망의 감정을 우리가 가지는 한, 그 감정에 속하는 사랑은 능동적이고, 자기 결정적이다. 여기에서 ‘자기 결정적’이라는 것은 이 형태의 감정이 정신의 코나투스인 이성의 활동, 즉 인식에 따라 적합한 관념을 가짐으로써 자기 스스로 사랑이라는 감정을 결정했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어떤 결점이 있는 사람을 우리가 사랑하는 경우에 정념으로서의 사랑은 그 결점을 의식하지 못하면서 사랑하는 맹목적인 사랑이다. 그러나 자기 결정적인 사랑은 적합한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 결점을 의식하면서 사랑하고 있다는 점에서 정념으로서의 사랑과 다르다. 정념으로서의 사랑이 결점을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자기자신을 잠재적 위험에 들여놓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념으로서의 사랑은 진정한 자기보존을 위한 코나투스로부터 따라나오는 것이 아니다. 반면에 자기 결정적인 사랑은 부적합성과 결점을 가진 인간존재를 받아들이는 사랑이다. 정념으로서의 사랑의 예로 보여준 천방지축으로 행동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은 적합한 관념에 기반을 둔 자기 결정적인 사랑의 예로도 이용될 수 있다. 두 사랑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정념으로서의 사랑을 하는 부모는 모든 증거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 자기 결정적인 사랑을 가진 부모, 즉 적합한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부모는 자식이 제멋

대로의 행동들을 했고, 어떤 성격상의 결함이 있다는 것을 인식한다. 그러나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사랑하고 지지한다.

스피노자는 “인간이 스스로를 자유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사물에 대해서 보다 자신들 서로에 대해 더 큰 사랑이나 증오를 가진다.”라고 말하면서 인간의 수동감정이 자유의지에 대한 인간의 부적합한 관념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이것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자. 내가 길을 가다가 돌 뿌리에 걸려 넘어진다면 나는 그 돌 뿌리에 대해 약간의 미운 감정만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발을 걸어서 내가 넘어졌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미움은 돌 뿌리와 비교해서 훨씬 더 클 것이다. 왜냐하면 그 사람은 돌 뿌리와는 달리 자신의 자유 의지에 따라 발을 걸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사랑의 감정 역시 마찬가지이다. 은행 강도가 칼로 내 가슴을 찌를 때 양복 주머니에 있는 지갑 때문에 찢리지 않았다면, 나는 그 지갑에 대한 어느 정도 사랑의 감정(호의적인 감정)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이 내 앞을 가로막아 나 대신 찢었다면, 그 사람에 대한 나의 사랑은 지갑에 대한 사랑보다 훨씬 더 클 것이다. 이 역시 그 사람은 지갑과는 달리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나 대신 찢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이처럼 자유의지에 대한 부적합한 인식은 인간 상호간에 사랑과 미움 등의 많은 감정들의 원인이 된다.

수동 감정과 능동 감정은 결국 인식의 적합성에 그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우리 인식의 적합성이 변화하듯이 수동 감정과 능동 감정 사이에도 연속이 있다. 내가 발에 걸려 넘어진 원인을 더 적합하게 인식하면 할수록 발을 걸은 사람에 대한 미움은 점점 작아진다. 마찬가지로 지갑 대신 찢린 사람에 대한 사랑도 점점 작아지게 된다. 나에게 발을 걸은 사람이나 나 대신 칼에 찢린 사람이 누군가가 밀어서 그렇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미움과 사랑의 감정은 점점 감소될 것이다. 또 그 사람을 믿 다른 사람은 그렇게 밀게 된 또 다른 원인들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두 경우 모두 모든 인과관계의 연쇄와 네트워크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는 미움과 사랑의 감정은 거의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적합한 인식으로 말미암아 부적합한 인식에 근거한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다. 사실상 두 경우 모두 미움이나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인식해야 할 이해의 대상일 뿐이다. 수동 감정에서 능동 감정으로 이행하는 것은 인식론에서 언급한 첫 번째 단계의 인식에서 두 번째 단계의 인식으로 이행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이 적합하게 인식하는 한 수동 감정은 자기 스스로 감정을 결정하는 능동적인 감정이 된다. 따라서 자기 결정적인 사랑을 가진 사람은 다른 사람을 증오하거나 멸시하거나 조롱하지 않는다. 다만 이해할 뿐이다.

스피노자는 “정신이 인식하는 한 정신에 관계하는 감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활동을 정신의 강인함이라 하고, 이 정신의 강인함은 용기와 관용으로 나누어진다.”(『윤리학』 IIP59S)라고 했다. 용기는 ‘이성의 명령에서 자신의 존재를 보존하고자 하는 욕망’이고, 관용은 ‘오직 이성의 명령에 따라 다른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우정을 기반으로 해서 결합하려고 노력하는 욕망’이다. 용기는 행위자에게만 이익을 주는 활동이고, 관용은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익을 주는 활동이다. 어떤 위협에 부딪혔을 때, 침착하게 정신을 가다듬는 등의 행동은 용기의 일종이고, 예의나 온화함 등은 관용의 일종이다(『윤리학』 IIP59S). 필자가 ‘자기 결정적인 사랑’이라고 명명한 것에 대해 스피노자는 관용이라고 했다.

스트로슨은 말하는 인간 상호간의 관계에서 초연한 태도(스피노자가 말하는 관용)와 관계하여 흥미로운 문제제기를 하였다. 우리가 누군가를 객관적으로 간주할 때, 우리는 그 사람과 전적으로 친한 관계에 놓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사람은 ‘치료’를 위한 대

상 즉 연구되거나 이해되어야 하는 대상인 것이다. 만약 우리가 누군가에게 객관적인 태도를 가진다면, 우리는 그를 동등한 인간으로 보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념으로서의 사랑뿐만 아니라 자기 결정적인 능동적인 사랑과도 모순되는 것으로 보인다.⁸⁾ 만약 스트로슨이 옳다면 대상에 대한 객관적인 태도가 어떤 감정적인 관계들을 배제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스피노자가 격찬하는 객관성과 합리성을 가진 사랑, 즉 적합한 이성적 인식에 근거한 사랑은 그 의미를 상실하게 된다. 그렇지만 스피노자가 생각하는 객관성의 형태는 스트로슨이 논의하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 스피노자에 따르면,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까지도 동시에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따라서 그 대상에 대한 연구는 우리 자신에 대한 연구까지 포함하고 있으며, 따라서 우리와 대상들 사이에 동등함이 유지된다.

스피노자의 감정 이론은 데카르트의 이론과 다음과 같은 점에서 다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입장을 따라 데카르트는 한편으로 덕과 악덕을 구별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덕과 악덕들’을 ‘감정들’과 구분했다. ‘덕과 악덕’은 자유의지와 관련되기 때문에 도덕적 칭찬과 비난의 대상이다. 반면 감정들은 자유의지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이해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중립적이다. 우리는 앞에서 스피노자가 아리스토텔레스와 데카르트와는 달리 자유의지를 부인하는 것을 보았다. 따라서 스피노자에게 인간 행동은 칭찬이나 비난의 주체가 아니다. 오히려 인간행동은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대상이다. 이처럼 스피노자에게 덕은 자유의지와 무관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감정과 마찬가지로 도덕적으로 중립적이 된다. 그리고 이것은 덕과 감정 사이의 구분이 없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데카르트와 스피노자의 관점을 다음의 경우에 적용시켜 보자. 어떤 회사에서 다른 동료의 프로젝트를 도용하고, 자신의 승진을 위해서 다른 동료들을 모함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어떤 남자 사원이 있다고 가정해보자. 이 경우를 데카르트에 적용시켜보면 우리는 그 사원의 행위에 대해 덕과 감정이라는 두 가지 경로로 접근할 수 있다. 그 행위들은 그 사원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악덕하다는 도덕적 비난을 하게 된다. 즉 덕이나 악덕은 자유의지에 대한 칭찬이나 비난이다. 하지만 그 행위들의 자유의지에 상관하지 않는 감정은 도덕적 판단과는 무관하다. 단지 그 행위들로 말미암아 그 사원을 미워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어떤 여사원은 그 행위들을 알면서도 그 사원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스피노자의 이론에 적용시켜 보면 그 행위는 그 사원의 자유의지에 따른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덕이나 악덕의 도덕적 판단의 대상이 아니다. 다만 그 행위에 대한 우리의 감정만이 있을 뿐이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덕은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 감정과 동일시된다. 그 사원을 미워하거나 멸시하는 등의 감정은 그 사원의 행위를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수동적인 감정, 즉 정념이다. 그러나 우리가 그 사원의 행위와 그 행위의 원인들을 적합하게 인식할 때에는 그 사원을 이해하고 관용이라는 능동적인 감정을 가지게 되고, 이것이 곧 덕이 된다. 스피노자에 의하면 이성의 안내에 따라 사는 인간은 가능한 한 다른 사람의 미움, 분노, 경멸 등에 대한 답례로 사랑 즉 관용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한다(『윤리학』 IVP46).

8) P.F. Strawson, "Freedom and Resentment," *Freedom and Resentment and Other Essays*, London: Methuen & Co., 1974), 1-25쪽.

3.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스피노자는 『윤리학』 5부에서 신에 대한 인간의 지적인 사랑을 전개시킨다. 이 사랑은 ‘세 번째 단계인 직관지로서 신에 대한 인식’을 기반으로 한다. 이 인식은 인간정신에서 최고의 이성적 활동, 즉 최고의 인식이다. 그리고 이 인식의 결과로 최고의 기쁨이 생기고, 그 기쁨의 원인인 신을 사랑하게 된다. 이러한 신에 대한 사랑은 최고의 인식에 근거하기 때문에 지적인 사랑이 된다. 모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이 지적인 사랑을 할 수 있는 가능성과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스피노자는 주장한다.

『윤리학』 5부 정리 16에서 20까지 스피노자는 전통적 신학의 전형적인 표현들을 신의 개념에 자주 적용한다. 그리고 신에 대한 사랑이 정념으로서의 사랑이 가지는 그런 결점이 없다는 점을 강조한다. 신에 대한 사랑은 정신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를 차지해야 하고, 또한 미움으로 변할 수 없다. 더 나아가 그것은 이기적이지 않고 질투나 시기심으로 더럽히 질 수도 없다. 여기까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이 아니라 ‘신에 대한 사랑’을 언급하고 있다. 우리는 이 ‘신에 대한 사랑’을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과 구별하기 위해 ‘신에 대한 상상적인 사랑’이라고 부를 수 있다. 스피노자의 인식 이론에 따르면, 우리가 외부 대상을 상상하는 한, 그만큼 정신은 그 대상에 대한 적합한 인식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신에 대한 상상적인 사랑은 적합한 관념에 기반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혼동과 허위에 종속되어 있다. 신에 대해 지성적인 사랑이 아닌 상상적인 사랑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적 행위자로서 그들의 전적인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스피노자가 『신학정치론』에서 주장한 성서 해석에 관한 견해와도 일치한다. 스피노자는 성서란 일반대중이 이해하도록 가장 쉽게 쓰여진 책이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성서는 많은 이야기와 비유적 언어들을 사용하고, 인간의 사고방식에서 서술되어 있다 (『신학정치론』 7장). 왜냐하면 일반 대중들이 ‘신’이라는 높은 주제를 지적으로 이해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일반 대중들은 성서를 통해서 신에 대한 지성적 사랑이 아니라 신에 대한 상상적 사랑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이 그들의 신에 대한 상상적 사랑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스피노자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언급하기 이전에 이러한 사랑을 언급하고 고려했다는 사실은 상상적인 신앙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성적인 능력과 관계없는 사람들도 모두 신에 대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 다만 일반 대중의 신앙과는 달리 신학자나 철학자는 인식에 근거해서 신에 대한 지성적인 사랑을 해야 하고, 이 지적인 사랑 (또는 상상적 사랑)의 결과로 생긴 기쁨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다.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상상적인 이해가 아니라 지성에 그 뿌리를 둔다. 따라서 ‘신과 직관지의 문제’(『윤리학』 VP24-31)와 ‘신체에 관계되지 않는 정신의 지속, 즉 신체가 소멸한 후의 정신의 영원성의 문제’(『윤리학』 VP21-23)를 다루기 전까지 스피노자는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을 논의하지 않는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이라는 용어는 정리 32의 주해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정신이 신체의 소멸 후에도 독립적으로 존재한다’는 정신의 영원성에 대한 스피노자의 주장은 데카르트의 이원론에 대한 그의 반대와도 일관성이 없고, 자신의 심신 동일론과 평행론과도 일관성이 없어 보인다. 켈리는 스피노자가 사실상 그의 체계에 실제로 조화될 수 없는 방식에서 정신의 영원성을 주장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또한 켈리에 의하면, 스피노자가 영원의 불멸성에 대한 대중적인 생각을 수용해서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보다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다.⁹⁾ 반면에 울프슨은 스피노자가 정신의

불멸성을 실제로 인정했다고 주장한다. 스피노자가 능동 지성으로서의 영혼이 신체의 소멸 이후에도 존재한다는 오래된 신학적이고 철학적인 전통에 영향을 받았다는 것이다.¹⁰⁾

‘신체가 사망한 후 정신의 존재’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 대한 스피노자의 주장들의 많은 측면들이 신비적이라고 주장하는 주석가들이 상당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주제 자체가 신비적인 요소를 안고 있기에 이러한 주장에 공감하기가 쉽다. 그러나 이러한 공감이 너무 멀리 나아가서는 안 된다. 요벨이 주장하듯이 비록 스피노자가 신비주의와 계시종교(유대교와 기독교)에 마음이 이끌리기는 했지만, 그가 사용한 방법들은 그것들과 관계가 멀다. 스피노자는 ‘혼동스럽고, 말로 나타내기 힘든 신비적 경험’보다 ‘이성과 이성에 의한 신에 대한 인식’을 강조한다.¹¹⁾

스피노자의 신에 관한 지적인 사랑은 인식론에서의 세 번째 인식, 즉 직관지에 기반을 두고 있는 사랑이다. 이것은 사물들을 통해서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직관에 의해 인식하는 단계이다. 이 인식은 두 번째 인식인 이성에 의한 인식을 통해서 발전될 수 있다. “우리가 한층 더 많은 사물을 인식함에 따라서 그만큼 더 신을 인식한다”(5부 24) 라는 스피노자의 진술은 두 번째 지식을 통해 세 번째 지식으로 나아가는 길을 언급하고 있다. 신적 본성의 필연성을 인식할 수 있는 세 번째 인식은 인간 최고의 인식이고, 따라서 최고의 덕이다(『윤리학』 VP25). 그리고 그것은 정신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생긴 최고의 정신적 만족을 주는 기쁨이다. 우리는 이 기쁨을 주는 대상, 즉 기쁨의 원인인 신을 향하게 되고, 거기에서 신에 대한 사랑이 생긴다(『윤리학』 VP32). 이 사랑은 최고의 인식인 직관지에 기반을 둔 완전히 능동적 사랑, 즉 지성적 사랑이다. 이 세 번째 단계의 인식은 항상 참이고, 영원한 진리이므로 신에 대한 지적 사랑 역시 영원하다. 그리고 이 지적인 사랑에서 생기는 마음의 평화와 정신적으로 최고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 인간에게는 최상의 행복이다. 이렇게 인간의 행복, 즉 잘사는 법은 신에 대한 지적 사랑에서 이루어진다.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을 소유한 사람은 모든 정념의 예속상태에서 벗어나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동요되지 않고 정신의 평정을 누리는 자유인이다. 그래서 진정한 자유인은 심지어 죽음의 공포에서도 벗어나 있다(『윤리학』 VP38). 현자는 정신이 거의 동요되지 않고, 자기자신, 신 및 사물을 영원한 필연성에 의하여 의식하고, 결코 존재하는 것을 그치지 않으며, 항상 정신의 참다운 만족을 소유하고 있다(『윤리학』 VP42).

IV. 스피노자와 기독교의 사랑 개념

이 장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을 기독교의 사랑 개념과 비교해 보고자 한다.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은 사랑의 여러 종류의 발생을 인식의 여러 단계와 병행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반면에 기독교의 사랑 개념에서는 이러한 설명들을 찾아볼 수 없다. 또한 ‘이기적인 정념으로서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 즉 관용으로서의 사랑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기독교의 사랑은 신앙에 의존한다. 반면에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인식과 적합한 인식을 구분하고, 이성에 의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관용

9) Edwin Curley, *Behind the Geometrical Method: A Reading of Spinoza's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85쪽.

10) H. A. Wolfson, *The Philosophy of Spinoza*. vol. 2, (New York: Schocken Books, 1969), 289-291쪽.

11) Yimiyahu Yovel, *Spinoza and other Heretics: The Marrano of Reason*(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37쪽.

으로서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렇게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은 기독교의 사랑 개념과 달리 인식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이것은 종교와 철학의 차이일 것이다. 그 뿐만 아니라 스피노자의 사상은 초월신, 인격신, 무로부터의 창조를 부정한다는 점에서 기독교의 사상과 많이 다르다. 그러나 이러한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이 기독교의 사랑 개념과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을 찾아 볼 수 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차이점보다는 주로 스피노자의 사랑 개념이 성서에서 언급되는 사랑 개념과 어떻게 연결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어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우리는 스피노자가 사랑을 세 가지로 분류하는 것을 보았다: ‘정념으로서의 사랑’, ‘자기 결정적인 사랑’,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이 중에서 수동감정인 ‘정념으로서의 사랑’은 스피노자나 성서가 권장하는 사랑 개념이 아님이 분명하다. 그러나 스피노자의 ‘자기 결정적인 사랑’과 ‘신에 대한 지적 사랑’은 성서에서 제시하는 사랑 개념과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스피노자의 자기 결정적인 사랑은 다름 아닌 관용으로서의 사랑이다. 이러한 사랑은 우선 사랑 장으로 유명한 고린도 전서 13장에 있는 사랑 개념과 닮아 없어 보인다. 스피노자의 관용은 정념, 즉 수동감정의 상태에서부터 벗어난 능동적인 사랑이다. 고린도 전서 13장의 사랑 개념도 투기, 자랑, 교만, 무례, 화남 등과 같은 스피노자가 수동감정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들이 금지된 개념이다. 그리고 오래 참음과 온유는 관용의 본질을 잘 표현하고 있다.

마태복음 18장 21-22절도 스피노자의 관용으로서의 사랑과 잘 연결되어 있다: “그 때에 베드로가 나아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일곱 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만 아니라 이흔 번씩 일곱이라도 할지니라.” 스피노자에게 이러한 용서는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윤리학』 4부 정리 46의 내용은 마태복음 5장 38-44절의 내용을 간결한 철학적 문체로 옮겨 놓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치 말라. 누구든지 네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 대며 또 너를 송사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십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마태복음 5장 38-44절)

이성의 인도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오, 분노, 경멸 등을, 반대로 사랑 즉 관용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한다. (『윤리학』 IVP46)

다음으로 ‘신에 대한 사랑’에 관한 스피노자와 기독교의 관점은 스피노자 자신이 직접 설명하고 있다. 그는 『신학정치론』 4장에서 직접 성서를 인용하면서 자신의 관점이 기독교의 관점에 기반을 두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는 여러 구절을 인용하면서 성서에서 ‘신에 대한 사랑’만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운 자의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도 언급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자신의 견해를 입증하는 구절로 잠언 2장 3-5절을 든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면 ...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

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 스피노자는 이 구절을 오직 지혜나 지성만이 신을 알 수 있도록 해주고 현명하게 경외하도록 가르친다는 의미로 이해하고 있다. 또한 그는 바울의 로마서 1장 20절에 주목한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그러므로 저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스피노자에 의하면 바울은 여기에서 모든 사람은 이성에 의해 신의 힘과 영원한 신성을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으며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변명할 수 없으며 몰랐다는 것을 이유로 내세울 수 없다고 결론 내린다.

또한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으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정과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는 다음의 구절들을 인용한다. 먼저 잠언 3장 13절의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를 통해서 성서는 “지성이 인간을 복되고 기쁘게 하며 정신의 참된 평화를 준다”는 점을 알려 주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잠언 3장 16, 17절도 지적인 사랑으로 인한 마음의 평정을 뒷받침하고 있다: “그 길[지식이 가리키는 길]은 즐거운 길이고, 그 첩경은 다 평강이니라.” 악인은 정념들에 의해 교란되며, 평화와 휴식을 갖지 못한다.¹²⁾ 반면에 오직 현자만이 평온하고 확고한 정신으로 살아간다. 이렇게 우리는 성서의 구절들을 통해서 스피노자의 관용으로서의 사랑과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 개념이 기독교의 관점과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V. 맺는 말

스피노자의 윤리학은 여러 종류의 감정이 발생하는 것을 인식의 여러 단계와 병행해서 설명해주고 있다. ‘이기적인 정념으로서의 사랑을 이타적인 사랑, 즉 관용으로서의 사랑으로 어떻게 전환시키느냐’의 문제에 대해서 스피노자는 부적합한 인식과 적합한 인식을 구분하고, 이성에 의해 우리가 이기적인 사랑에서 벗어나서 관용으로서의 사랑을 가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처럼 스피노자의 윤리학의 특징은 인간의 감정을 근거로 인식을 발전시키는 데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스피노자에게 윤리학은 인식론과 병행해서 나아간다고 할 수 있다.

정념, 즉 수동 감정의 상태에서 벗어난 능동적인 사랑인 관용은 기독교인들의 사랑과 비교될 수 있다. 진정한 기독교인들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해 주고, 이웃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한다. 기독교인들은 신앙의 힘으로 그러한 마음을 갖지만, 스피노자의 경우는 인식의 힘으로 그렇게 할 수 있게 된다. 즉 스피노자에게 용서와 사랑은 이성의 지도에 따라 생활하고 인식하는 사람만이 가능하다. 이것은 그의 철학의 주지주의적인 측면을 잘 드러내 주고 있다. 『윤리학』 4부 정리 46은 이성의 힘으로 감정의 노예 상태에서 해방된 사람들의 경우를 특유의 간결한 문체로 잘 표현해주고 있다: “이성의 인도에 의해서 생활하는 사람은 가능한 한 자기에 대한 다른 사람의 증오, 분노, 경멸 등을, 반대로 사랑 즉 관용으로 보답하려고 노력한다.” 더 나아가 이성의 인도에 따르는 사람들은 각자가 자기를 위하여 추구하는 선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욕구한다. 그리고 그가 갖는 신에 대한 인식이 보다 클수록 그만큼 더 많이 이것을 욕구한다(『윤리학』 IVP37).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모든 사물을 영원의 상(相)에서 보게 되면서 얻게 되는 마음의 평정이고, 이 상태가 바로 스피노자가 알려주는 인간의 최고 행복이다. 그에 의하면, 이러한

12) 이사야 57장 20절 참조.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마음의 평정 상태는 감정을 억누르고 통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념, 즉 수동적인 감정을 인식의 힘에 의해 능동적인 감정으로 전환시켜서 얻게 된다. 이것은 기독교인들이 추구하는 구원의 경우와 비교될 수 있다.¹³⁾ 그들이 믿음으로 진정한 구원을 얻었을 경우 그들은 세상의 어떤 모진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신앙의 힘, 즉 신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이러한 정신의 참된 평화를 얻게 된다. 스피노자는 신앙, 즉 신에 대한 사랑으로 얻게 되는 종교적인 마음의 평화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는 일반 대중에게는 (그들이 인식의 힘을 사용할 수 없다면) 그러한 종교적 방법을 인정하고 있다. 그것 역시 정념의 노예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¹⁴⁾ 그러나 스피노자는 인식의 힘, 즉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의 힘으로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될 때 확고한 정신으로 살아갈 수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그가 이성의 힘에 의한 인식을 더 확고한 것으로 인정하는 주지주의자이기 때문이다.

스피노자는 『윤리학』의 마지막 부분에서 자신이 제시한 최고 행복에 이르는 길이 심히 험난한 길인 것처럼 보이지만 발견될 수는 있다고 말한다. 사실상 드문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임에 틀림없다는 것이다. 그는 많은 사람들이 이 최고 행복을 등한시하는 이유가 그것이 손 앞에 있어서 힘들이지 않고 잡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어려움이 수반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는 “모든 고귀한 것은 드문 동시에 어려움이 따른다.”라는 문장으로 『윤리학』을 끝맺고 있다.

K C I

13) 스피노자의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신비화되어 온 경향이 있다. 그 이유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의 결과가 종교적인 체험을 통해 얻게 되는 결과와 거의 같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주석가들은 스피노자가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불만을 털어 놓는다. 그러나 스피노자는 사실상 그것에 대해 할 말이 별로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기독교의 신앙적 체험을 한 사람이 그 체험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든 것과 마찬가지이다. 그것은 직접 그 상태에 이르지 않고는 말로 나타내는 것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14) 예를 들어 스피노자는 하숙을 할 때, 그의 집주인 부부에게 교회를 열심히 다닐 것을 권유했다.

참고문헌

I. 1차문헌

- Descartes, Rene. *The Philosophical Works of Descartes*, 2vols. Translated by E.S. Haldane G.R.T. Ros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9.
- _____, 『성찰』 이현복 역, 서울: 문예출판사, 1997.
- _____, 『철학의 원리』 원석영 역, 서울: 아카넷, 2002.
- Spinoza, Baruch. *The Chief Works of Benedict de Spinoza*. 2 vols. Translated by R. H. M. Elwes, London: Chiswick Press, 1883.
- _____, *The Collected Works of Spinoza*. Vol. 1. Edited and translated by Edwin Curley.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5.
- _____, *Ethics*. Translated by James Gutmann. New York and London: Hafner Press, 1949.
- _____, 『에티카』, 강영계 역, 서광사, 1990.
- _____, *Theological-Political Treatise*. Indianapolis/Cambridge: Hackett Publishing Company.
- _____, *Spinoza Opera*. 4 vols. Edited by Carl Gebhardt. Heidelberg: Carl Winter, 1925.

II. 2차문헌

- 김익현, 「스피노자 철학에서의 정신의 영원성과 직관지」,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50집, 2000, 87-109쪽
- 박삼열, 「스피노자의 심신론: 심신 동일론과 평행론」,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53집, 2001, 137-158쪽.
- _____, 「스피노자의 속성개념: 주관적 해석과 객관적 해석」,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55집, 2001, 91-107쪽.
- _____, 「스피노자의 속성개념에 대한 객관적 해석의 문제점」,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58집, 2002, 259-277쪽.
- _____, 「스피노자의 형이상학에 대한 질료형상론적 해석」, 한국철학회, 『철학』 제74집, 2003, 105-128쪽.
- _____, 「근대적 개인과 스피노자의 일원론」, 철학연구회, 『철학연구』 제66집, 2004, 93-119쪽.
- 홍영미, 「스피노자의 코나투스 이론」, 서강대학교 비교사상연구원, 『신학과 철학』 제6집, 2004, 303-323
- Bennett, Jonathan. *A Study of Spinoza's Ethics*. Lond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84.
- Curley, E. M. *Spinoza's Metaphysics: An Essay in Interpretation*, Cambridge, Massachusetts: Harvard University Press, 1969.
- _____, *Behind the Geometrical Method: A Reading of Spinoza's Ethics*,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8.
- Delahunty, R. J. *Spinoza*. London, Boston, Melbourne and Henley: Routledge and Kegan Paul, 1985.
- Donagan, A. "Spinoza's Proof of Immortality", in *Spinoza: Critical Assessments of Leading Philosophers*, vol. 2. Edited by G. Lloyd, Routledge, 2001.
- Hampshire, Stuart. *Spinoza*. New York; Penguin Books, 1951.
- Mark, T. C. *Spinoza's Theory of Truth*. Now York and London: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2.
- Singer, Brent A. "Spinoza on Returning Hatred with Love," *Journal of Moral Education*, January 1988, pp. 3-10.
- Strawson, P.F. "Freedom and Resentment," in *Freedom and Resentment and Other Essays*. London: Methuen & Co., 1974.

Rorty, Amelie. "Spinoza on the Pathos of Idolatrous Love and the Hilarity of True Love," in *The Philosophy of (Erotic) Love*, ed. Robert C. Solomon and Kathleen M. Higgins, Lawrence, University Press of Kansas, 1991, pp. 352-371.

Wolf, A. "Spinoza", in *Journal of Philosophical Studies*, vol. 2 no. 5 1927, pp. 16-27.

Wolfson, H. A. *The Philosophy of Spinoza*. 2 vols. New York: Schocken Books, 1969.

Yovel, Yirmiyahu. *Spinoza and other Heretics: The Marrano of Reason*.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9.

K C I